

『이정규 목사와 필라델피아교회 성도들의 신앙선언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

I. 서문 - 나의 신앙의 여정과 부르심

나는 은혜의 손에 이끌려 이 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초입에서부터 눈물과 가난과 상실이라는 언어로 나를 빚으셨다.
인간의 의지로는 풀 수 없는 고통의 매듭들이, 어느새 나를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세상의 냉기 속에서 나는 배웠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그 말씀은 나의 심장을 붙들었고,
나는 그 불길에 이끌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은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부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제단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확신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인간의 절망을 덮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승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 나는 목회자의 길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힘들다”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나에게 큰 무대를 주시지 않고,
한 구석의 방이동 골목길에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은 요한계시록의 칭찬받는 교회에서 온 것이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

내 교회가 크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것이면 충분하다.

필라델피아교회를 개척하며 나는 다짐했다.

나는 이 시대의 유행이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리라.

나는 말씀의 진리 위에, 언약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성도들이 세상의 언어보다 복음의 언어로 숨 쉬는 공동체,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사랑이 공동체를 묶는 그런 교회를 세우리라.

나는 이 교회가 “개혁신학의 향기가 나는 작은 동산”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령을 위로자로 경험하기를.

이 고백의 시작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이다.

나는 부족하고, 때로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선언문을 써 내려간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빛내셨는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주여, 작은 교회 필라델피아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보이소서.

작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사람을 일으키는 그날까지.”

II. 하나님론 -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

나는 믿는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분은 홀로 자존하시며,

스스로 계신 자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되 어둠이 그 안에 조금도 없으시며,

모든 피조물의 원인이요 목적이시며,

인간의 이해나 상상으로 가두어질 수 없는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이 단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인격적 하나님임을 믿는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초월하시되,

구속자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

세 위격은 동일 본질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함께 이루신다.

- 성부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다.
창세 전부터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들의 품으로 인도하신다.
- 성자는 그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속자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구속을 이루셨다.
- 성령은 그 구속을 택한 자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위로자이시다.
그분은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교회를 하나로 묶으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나누어지지 않고,

언약의 경륜 속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2)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혼돈의 신이 아니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뜻과 선한 기쁨을 따라

세상의 작은 일, 한 잎의 낙엽, 한 영혼의 눈물까지도 주관하신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10:29)

이 말씀은 우연이란 없음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가르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닌,

날마다의 목회 현장에서 체험하는 살아 있는 진리로 믿는다.

교회의 부흥도, 고난도, 지체의 눈물도,

모두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

(3)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거룩은 단지 도덕적 완전이 아니라,

그분만이 ‘하나님 되심’을 의미한다.

그분의 거룩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되,

그분의 자비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가 서로 입맞춘 자리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의 죄가 깊었지만,
그분의 은혜는 더 깊었다.

(4)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존재

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인간의 존귀함은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기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의 회복**에 있다.
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스스로 붕괴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회복된다고 믿는다.

(5) 현대 신학에 대한 고백적 거절

나는 선언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율을 신격화하는
현대 인본주의 신학을 거부한다.

나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있다”는 내재적 신관을 거절하며,
“하나님은 우리 밖에,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는
성경적 신관을 붙든다.

나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 안에 가두는
‘이성의 신’을 경계하며,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Ⅲ. 성경론 -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신앙의 규범

나는 믿는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유일한 말씀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기 위해 친히 말씀하신 기록이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이며,

그 생명은 모든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다.

(1) 성경의 영감과 무오

나는 고백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영감은 단순히 “영감을 받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자를 감동하사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이 전적으로 무오하며,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그 안에 오류가 있을 수 없고,

그 권위는 어떤 학문적 비평이나 인간의 이성 위에 있지 않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딤후 3:16)

나는 이 말씀을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삶의 근거요, 설교의 출발점으로 붙든다.

(2) 성경의 자족성과 충분성

나는 성경이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어떤 영적 체험이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나는 신앙의 규범을 오직 성경에서 찾으며,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전통은
성경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권위를 가진다.

“나는 교회가 성경을 만든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이 교회를 낳았다고 믿는다.”

(3) 성경의 명료성과 자해석성

나는 성경이 본질적인 구원 진리에 있어서 명료하게 계시되었다고 믿는다. 이는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가능한 명료함이다.

또한 나는 성경이 성경 자체로 해석되는 원리,
즉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한다” — 를 신앙의 원칙으로 삼는다.

어떤 철학이나 시대정신도
성경의 해석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스스로 빛이며, 그 빛으로 다른 모든 것을 비춘다.

(4)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속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흐른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그러므로 나는 설교할 때 본문을 역사나 윤리의 교훈으로만 다루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힘쓴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신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5) 현대 비평 신학에 대한 고백적 거절

나는 성경을 단순히 ‘고대 종교문헌’으로 취급하며
그 권위를 인간의 비평 아래 두는 모든 신학을 거부한다.

성경의 권위는 연구나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성경을 “증명”하지 않아도,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나는 인간이 성경을 판단하려 드는 태도를 죄로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신다.

(6) 성령과 말씀의 관계

나는 성령 없이 말씀을 알 수 없음을 믿는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셔서
죽은 자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역사 없는 설교는 단지 언어일 뿐임을,
성령의 조명 없는 지식은 교만일 뿐임을 고백한다.

성령은 말씀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말씀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만 참되게 깨달아진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신적 연합 속에 있다.

IV. 인간론과 죄론 - 깊은 절망 속의 은혜의 빛

나는 고백한다.

인간은 스스로 선하지 않다.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반역이다.

에덴의 정원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이르려 했다.

그날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의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보좌에 앉혔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1) 인간의 창조와 존귀

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았음을 믿는다.

그 형상은 이성이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 교제 안에서 나타나는 거룩함과 의로움이다.

그러나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각히 파괴되었다.

이제 인간은 여전히 형상의 흔적은 지니지만,

그 본래의 빛은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귀함은 자기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안에 있다.

나는 인간의 가치는 자존감에서 나오지 않고,

창조주께로부터 오는 외적 선언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2)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나는 믿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 타락은 전적이다.

전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전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 — 이성, 감정, 의지, 영혼 —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의미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스스로 회개할 수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다.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 2:1)

나는 이 말씀을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해부학적 진단으로 받아들인다.

(3) 죄의 본질

죄는 단지 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존재의 태도이다.

죄는 사랑의 왜곡이며,
진리를 자기 유익에 맞게 비틀어 버리는 반역이다.

인간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예술은
때로 이 죄의 깊이를 미화하거나 회피하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극도로 부패한 것”이라 선언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렘 17:9)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낭만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
인간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4) 죄의 결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죽음을 불러왔다.

그 죽음은 단지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곧 영원한 소외다.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 분열, 탐욕, 전쟁, 눈물이
이 단절에서 흘러나온다고 믿는다.

(5) 절망 속의 은혜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심연에서
은혜의 빛이 비친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다.
인간은 완전히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하신다.

죄의 깊이만큼, 은혜는 더 깊다.
절망이 짙을수록, 십자가의 빛은 더 눈부시다.

(6) 인간의 회복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그 회복은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새 창조(New Creation)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후 5:17)

나는 교회가 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공동체임을 믿으며,
설교는 단지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선포”라 고백한다.

(7) 현대 인문주의에 대한 고백적 거절

나는 인간의 내면을 절대화하는 인본주의,
자기 확신을 신앙으로 오인하는 영성주의를 거부한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낙관을 부정하며,
오직 성령의 재창조적 능력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V. 구원론 -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나는 믿는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공로, 혹은 종교적 열심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은혜의 역사이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이다.
그분의 은혜가 먼저 나를 붙들었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1) 구원의 기원 - 하나님의 선택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
그 선택은 인간의 선행을 예견하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랑의 결정이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엡 1:4)

나는 이 선택의 교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절망 속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확신의 약속이라 믿는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도 구원을 잃지 않고,
그 언약이 변치 않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2) 구원의 근거 - 그리스도의 대속

나는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역은
단지 본보기나 감정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로 감당하신 대속의 사건이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 대신”이며,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이 칭의(Justification)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나는 믿는다.
이 교리는 단지 법정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언약임을.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으며,
나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

(3) 구원의 적용 - 성령의 역사

나는 고백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시간 속의 나에게 실제로 적용하신다.

그분은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며,
회개와 새 생명을 주신다.

나는 믿는다.
회심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 주시는 역사(regeneratio)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 3:6)

그러므로 나는
성령이 주도하지 않은 신앙운동을 신앙이라 부르지 않는다.
성령 없는 회심은 감정의 환상일 뿐이며,
성령 없는 교회는 단지 조직일 뿐이다.

(4) 칭의와 성화

나는 믿는다.

칭의(Justification)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법정적 선언이며,
성화(Sanctification)는 그 은혜가 삶 속에 열매 맺는 과정이다.

칭의는 우리의 위치를 바꾸며,
성화는 우리의 모습을 바꾼다.
그러나 둘 다 은혜의 열매이며,
성화는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롬 5:1)

나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죄책감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감사로 순종하도록 인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화의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다.

(5) 구원의 완성 - 영화(Glorification)

나는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완성에 이른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날을 기다린다.
그날에 나의 연약함은 영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의 눈물은 완전히 닦이리라.

(6) 오직 은혜 · 오직 믿음 · 오직 그리스도

나는 이 세 가지를 복음의 세 기둥으로 붙든다.

- **오직 은혜(Sola Grat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 **오직 믿음(Sola Fide):**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 믿음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으며,
그분은 구원의 중보자요 완성자이시다.

(7) 인간 공로의 부정과 은혜의 확신

나는 선언한다.

모든 인간적 공로와 자량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다.

나는 나의 목회와 신앙이 성공의 결과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 있음을 고백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전 15:10)

은혜가 내게 충분하며,

은혜가 내 교회를 세우며,

은혜가 나를 끝까지 인도한다.

VI. 교회론 -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공동체

나는 믿는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구속 공동체이다.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활동의 모임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거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인 언약의 공동체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1) 교회의 기초

나는 믿는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인간의 카리스마나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교회가 자신을 지키려 할 때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살아난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의 성공보다
교회의 진실함을 추구한다.

(2) 교회의 표지 (Marks of the True Church)

나는 개혁신교회의 전통을 따라,
참된 교회의 세 표지를 붙든다.

1.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 교회는 말씀이 주인이며,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선포하는 자리이다.
- 나는 설교자가 아닌 말씀 자체가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한다.

2.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

- 세례와 성찬은 단지 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 나는 성례를 경건하게 시행하며, 성도들이 그 안에서 복음의 실체를 맛보게하기를 원한다.

3. 권징이 거룩을 지키는 곳

- 권징은 징벌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이다.
- 교회가 죄를 덮지 않고, 진리 안에서 회복을 추구할 때 그 거룩이 교회를 살린다.

(3) 교회의 본질 - 은혜의 공동체

나는 교회를 은혜로 부름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로 믿는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나는 교회의 중심이
 '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임을 믿는다.
 복음이 중심을 잡을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4) 작은 교회의 신학

나는 큰 교회보다 진리 위에 선 작은 교회를 더 귀히 여긴다.
 하나님은 광대함보다 진실함을 기뻐하시며,
 숫자보다 순종을 보신다.

필라델피아교회는 작지만,
 그 작음이 곧 신실함의 상징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교회의 규모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충실성으로 교회의 가치를 평가한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계 3:8)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5) 교회의 사명

나는 교회가
세상의 욕망을 복제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절망 속에 소망을 심는 곳이 되기를 소망한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말씀, 성도의 교제, 선교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표지(signum Regni Dei)를 세상에 보이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6) 공동체의 질서와 사랑

나는 믿는다.
교회는 사랑과 질서가 함께 존재할 때 건강하다.
질서 없는 사랑은 혼란을 낳고,
사랑 없는 질서는 율법이 된다.

교회는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사랑해야 하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를 꿈꾼다.

(7) 교회의 고난과 소망

나는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그것이 곧 복음의 표식임을 믿는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다.

고난은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24)

나는 필라델피아교회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남기를 소망한다.

Ⅶ. 설교론 -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

나는 믿는다.

설교는 인간의 지혜로 꾸며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의 영혼을 향해 선포되는 사건이다.

설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자리이다.
따라서 설교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도구이다.

(1) 설교의 기초 - 성경 중심

나는 설교의 유일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숨기지 않는다.

설교자는 텍스트의 주인이 아니라, 봉사자(servus Verbi)이다.
그의 임무는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스스로 말하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나는 본문이 흐르는 방향대로 설교하려 한다.
본문이 경고하면 나도 경고하고,
본문이 위로하면 나도 위로한다.
설교는 본문을 이끌지 않고,
본문이 설교를 이끈다.

(2) 설교의 중심 - 복음 중심

나는 설교의 중심이 **도덕이나 감정이 아니라 복음**임을 믿는다.
복음은 단지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고 방향을 정하는 새로운 질서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고후 4:5)

나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무엇을 이미 받았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행동의 동력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설교의 초점 - 그리스도 중심

나는 모든 설교의 궁극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구약의 제사에서, 시편의 탄식에서,
신약의 교훈에서조차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흐른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요,
설교의 목표이며,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하였노라.” (고전 2:2)

나는 교리적 균형을 잃지 않되,
모든 설교가 궁극적으로 복음의 중심을 향하도록 한다.

(4) 설교자의 자세 - 숨고, 말씀만 드러나게 하라

나는 설교자가 빛나는 순간,
말씀이 가려진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설교자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말씀의 통로요 종이다.
설교자의 언어는 장식이 아니라 통역이며,
청중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여는 것이다.

나는 설교를 예술이 아닌 경외로,
수사학이 아닌 순종으로 준비하려 한다.
설교 준비는 사색이 아니라 예배이며,
설교 행위는 전달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다.

(5) 설교의 능력 - 성령의 역사

나는 설교의 능력이
설교자의 재능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서 온다고 믿는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냉랭한 영혼이 불붙는다.

설교는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만남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나는 설교 전보다, 설교 중보다,
설교 후에 더 기도해야 함을 안다.

(6) 설교의 목적 - 삶의 변화

나는 설교가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임을 믿는다.

설교는 죄인을 부르시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꿈꾸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나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율법의 두려움이 아닌 복음의 자유로 나아가길 원한다.
진리는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며,
그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7) 설교의 윤리 - 정직과 경외

나는 설교자가
성도 앞에서 말보다 삶으로 설교해야 함을 믿는다.
설교자의 도덕적 일탈은 단지 실수가 아니라,
말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극이다.

나는 설교를 두려움으로 준비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8) 현대 설교에 대한 고백적 거절

나는 단순한 동기 부여, 자기계발, 감정적 위로를
복음 설교로 오인하는 풍조를 거부한다.
설교는 인간을 위로하기보다,
먼저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 후에 복음의 은혜로 일으켜 세운다.

설교가 청중의 욕구를 맞추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된다.
나는 청중의 귀를 만족시키기보다,
그들의 영혼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로 서고자 한다.

Ⅷ. 윤리와 삶 - 복음의 향기를 세상 속에

나는 믿는다.

복음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한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단절된 도피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은 내 신앙을 사적인 위안으로 가두지 않고,

세상의 상처 속으로 나를 보낸다.

왜냐하면 구원은 도피가 아니라 파송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마 5:14, 16)

(1)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윤리

나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믿는다.

은혜는 게으른 영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참된 은혜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15:10)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지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한다.

그 순종은 억지의 짐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다.

(2) 성도의 삶 - 거룩과 사랑

나는 믿는다.

거룩은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삶이다.

거룩은 규칙이 아니라 방향이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반응이다.

나는 참된 거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다고 고백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7-39)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선택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

(3) 세상 속의 신앙

나는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회복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가 세상과 거리를 두되,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믿는다.

신자는 세상의 가치와 동일시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15:19)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4) 직업과 소명

나는 신자의 모든 삶—직업, 가정, 인간관계—이
하나님께 드리진 예배의 연장임을 믿는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직장인은 일터에서,
어머니는 가정에서,
학생은 배움의 자리에서
각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나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추구한다.

(5) 고난과 신앙의 성숙

나는 고난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는 도구임을 믿는다.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정금처럼 만드는 연단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불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23:10)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6) 사회적 책임과 공적 신앙

나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아야 함을 믿는다.
그러나 그 외침이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복음의 의로움과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고백한다.

참된 신앙은 단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로 확장된다.

나는 정의가 복음의 대체물이 되지 않게 하되,
복음이 정의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붙든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암 5:24)

(7)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나는 믿는다.
신앙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여정이다.

성도의 삶은 완벽하지 않으나,
그는 매일 회개하며 다시 일어난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그의 방향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나는 필라델피아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작은 능력의 사람들”로 서길 기도한다.

IX. 종말론 -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나는 믿는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작과 끝이 정해진 구속의 이야기이다.

세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성된다.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절정이며,
심판은 복수의 폭풍이 아니라 의의 승리이다.

(1) 종말의 중심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 재림은 상징이 아니라 사건이며,
교회의 희망이자 인류 역사의 완성이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행 1:11)

나는 그날을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자로 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날은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날이기 때문이다.

(2) 종말의 의미 -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나는 믿는다.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재림으로 그 나라는 완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the already and the not yet)** 를 산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아직 그 영화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 긴장 속에서 신자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8)

(3) 종말의 사건 - 부활과 심판

나는 믿는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깨어나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

“무릇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5:28-29)

부활은 신비가 아니라 약속이며,
심판은 공포가 아니라 **의의 선언**이다.

나는 성도가 받을 상급보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뵈 그 영광을 더 사모한다.

(4) 새 하늘과 새 땅

나는 고백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불로 정확하여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사 65:17)

이 세상은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피조세계이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적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 현실**임을 믿는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죄와 눈물과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계 21:3-4)

이것이 나의 소망이며,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견디게 하는 힘이다.

(5) 종말과 교회의 사명

나는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가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더 **충실히 현재를 살아야 함**을 믿는다.

종말의 소망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현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나는 필라델피아교회가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6) 세속적 종말론에 대한 고백적 거절

나는 세상의 종말론—공포, 음모, 정치적 구원—을 거부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지만,
복음의 소망을 약화시킨다.

나는 또한 교회가 종말을 **현세의 성공 논리**와 연결시키는
번영주의적 왜곡을 단호히 거부한다.

종말은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이야기”이다.

(7) 종말의 삶 - 깨어 있음과 소망

나는 종말의 신앙이란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깨어 있는 삶**이라 믿는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깨어 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집중이다.
나는 종말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매일의 작은 순종으로 그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것이라 고백한다.